# 민중의 소박함 깃든 가람

가람의 장면들 27

## 고창 문수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민중의 소박함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고창 문수사 문수전과 그안의 문수상. 우리나라에서 문수보살을 단독으로 모신 문수전은 이 절 밖에 없다.

15년 전 무척 더웠던 여름날. 자동차 길도 없어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길을 올라, 어느 깊은 산사에 겨우 도착했다. 일단 절에 도착하면, 먼저 주지스님을 찾아 사찰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먼저 할 일이었다. 그런데 그 절에는 스님은 한 분도 안보이고 늙은 보살 한 분만 계셨다. 너무나 깊은 산골이어서 스님조차 안 계시는가 실망하던 차였다. 절 한 귀퉁이에서 밀짚모자를 쓴 농사꾼 아저씨 한 분이 땀을 씻으며 나타났다. 막 농사일을 끝내고 올라온 듯. 바지 한쪽을 접어올린 베 잠뱅이와 텁수룩한 얼굴은 영락없이 절 땅을 부쳐먹는 머슴이었다. 스님 어딘 계신가 물으니, 조금만 있으라 하면서 요사채로 사라졌다. 잠시 후 승방 문이 열리고 어디선가 주지 스님이 나타났는데, 자세히 보니 바로 좀전의 그 농사꾼이었다.

스님의 말씀인즉, 한국 불교는 신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는데, 그 절의 가난한 농사꾼 신도들에게는 받을 것도 없지만, 이제는 주어야할 때다. 그래서 절 농토를 이용해서 절 아래 마을 주민들과 새 영농기술을 개발하면서 공동경작 중이라는 것이다. 스님을 만나기 전에 절 집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일정한 격식이나 화려함보다는 민중적인 소박함과 일상적 자유로움이 돋보이는 건축이었다. 그 건축적 이미지와 주지스님의 서민적 면모가 오버랩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절이 문수사였다.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 있는 해발 620m 높이의 추령산은 일명 문수산이라고도 불리우고, 그 산 중턱에 문수사가 숨어있다.

문수사의 건축은 예사 절집들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가람의 영역이 좁아서 입구 진입로가 사찰의 앞구리를 치고 올라가는 꼴이 되었다. 운치있는 계단길을 오르면 작은 대문이 나오고, 대문을 들어서면 강당인 만세루가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서있다. 진입로의 정면에는 오히려 한산전이라는 대방채가 놓여졌는데, 중국의 그 유명한 한산습득 고사에서 온 승방 이름이다. 중심부분은 만세루 너머 작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대웅전과 명부전이 안마당을 감싸는 구성도 예사롭지 않지만, 가장 특이한 것은 대웅전 바로 뒤에 놓인 문수전이라는 작은 전각이다. 문수전은 물론 문수보살을 모신 전각인데, 그 많은 고찰 중에서도 문수보살을 단독으로 모신 문수전은 이 절 밖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그 위치도 특이하다. 대웅전은 가람 내에서 최고의 주불전이다. 그 바로 뒤에는 특별히 중요한 · 대웅전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 전각들만을 놓을 수 있다. 아니면 모두 비껴서 대웅전 뒤쪽 좌우에 위치하게 된다. 그런데 문수사에서는 문수전이 대웅전 바로 뒤편에 위치한다. 그만큼 문수전이 중요한 건물이라는 뜻이다.

### 산사 고적한 분위기 압권 후덕한 문수보살상 특이

문수사는 644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곳이라 전한다. 자장스님은 중국 오대산(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을 친히 뵙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일생 문수보살을 다시 친견하는 것이 소원이어서, 귀국한 후에도 강원도의 한 산을 골라 오대산이라 이름을 붙여 문수보살의 주처를 만들 정도였다. 그러나 말년에 드디어 문수보살이 거지꼴을 하고 친히 나타났으나, 눈이 어두워진 스님은 알아보지 못했다.

자장율사가 귀국하면서 추령산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생김새가 중국의 오대산과 너무 유사해서 이 산의 석굴에서 지성으로 기도를 드렸다. 7일만에 땅 속에서 문수보살상이 솟아올라, 여기에 절을 짓고 문수사라 했다는 사적기의 기록이다. 그러나 당시 이곳은 신라의 적국인 백제땅이어서, 신라의 국통인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문수보살은 어떤 분인가? 중생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분이다.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의 아픔과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라면, 문수보살은 그 고통을 해결할 현명함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도를 실천하기 위한 용맹을 주는 분이다. 이 지적인 보살은 원래 귀족적 풍모가 강했다. 조선시대에 오면, 불교의 주 신도층을 구성했던 농민들은 지식인적인 문수보살보다 대중적인 관세음보살에게 더 큰 의지를 했고, 관세음을 위한 원통전이나 관음전은 지어졌지만, 문수전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문수사의 문수보살님은 지적인 풍모와는 거리가 멀다. 사람 키 정도의 높이인데, 얼굴이 전체의 1/3 쯤 차지하니, 요새 말로는 틀림없이 큰바위 얼굴이다. 또, 두리 뭉실한 상호는 지식보다는 덕이 많은 큰스님과 같은 얼굴이다. 이 상은 아무리 보아도, 조선시대 후기 작품이 확실하다. 민중층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시대 불교에서는 가장 이지적인 문수보살마저도 민중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작은 건물인 문수전의 입구는 측면에 뚫렸다. 문수상이 건물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축에서 측면에 입구를 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동네 어귀에 있는 상여집이나 당집 정도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다. 건물 마저도 민중적인 형식을 취했다. 문수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면서, 이 보살님과 건물은 가난한 신도들의 소원을 이루는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 "티베트에 자유를…"

불교 NGO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 해외 280여 불교NGO '자유티베트' 운동 후원

## 환경·인권보호도…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와 불교NGO간의 공방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티베트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른바 '자유 티베트(Free Tibet)'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네따앙불교인동호회, 대원불교청년회, 티베트인권독립회의 등 10개 불교단체가 '티베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결성, 티베트 인권·문화 캠페인을 벌인 것을 비롯, '달라이 라마 방한 범불교대책위원회'가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에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기존의 티베트의 문화와 수행에 대한 관심이 독립·인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유 티베트운동'은 이제 시작단계.

미국이나 유럽,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불교NGO를 비롯한 수백 개의 민간단체가 티베트 망명정부를 후원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이들의 인권현실에 무관심한 실정이다.

현재 '자유 티벳'을 지지하는 해외 불교 NGO는 280여곳. 이 가운데 활동이 활발한 단체는 30여 곳이다. 이들은 티베트의 수행법과 문화 체험, 환경감시 활동 등을 통해 티베트인의 자유와 인권회복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활동이 두드러진 곳은 티베트 망명정부 산하의 NGO로서 티베트청년의회, 티베트인권민주센터, 티베트여성협회, 티베트자유운동이 대표적이다. 특히 티베트청년의회는 98년 4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티베트 인권회복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중 한 명이 분신,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티베트 난민들이 이주·정착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청년·대학생 그룹을 중심으로 정치적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는 티베트 비폭력 독립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달라래과 기금', 티베트에 본부를 둔 국제적 비영리단체로 자유티베트 청년운동을 전세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도 중국 정부에 항의편지 보내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티베트를 위한 국제 캠페인', 94년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 학생단체 'SFT(Students for Free Tibet)', '자유 티베트 캠페인' 등이 자유 티베트 운동을 이끌고 있다.

티베트의 환경과 인권보호 운동도 활발하다. '티베트를 위한 국제법률가 위원회'의 인권보호활동과, 매년 '세계 티베트의 날'이 개최하는 티베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연대 행사가 눈에 띈다. 티베트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한 '티베트 고원 프로젝트', 티베트 자연 환경 파괴 보고서를 펴내는 '티베트 환경 감시' 등도 대표적인 환경 기구.

해외 NGO들의 자유 티베트 운동은 티베트 수행법과 문화체험 활동에서 출발했다. 전세계 50여국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 사원, 문화센터, 각종 교육기관이 이들 활동의 진원지다.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곳을 중심으로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불붙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티베트 환경·인권문제로 시야가 넓어진 것. 현재 티베트 관련 NGO 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각종 티베트 관련 단체가 200여 곳을 넘는다.

주민황(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박사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선 안되며, 티베트의 인권 상황과 불교사상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해외 불교NGO와의 연대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자유 티베트' 운동관련 주요 불교NGO

| 이 름 | 사이트 주소 | 내 용 |
|---|---|---|
| 티베트인권독립회의 | tibet.net or kr | 티베트 불교 소식 정리 홈페이지 |
|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기다리는 사람들 | dalailama.net kr | 달라이라마 방한을 촉구하는 캠페인 페이지 |
| 대원불교청년회 | daewon buddhist.org | 티베트불교 숨겨진 보물들과의 대화 |
| 티베트인권민주센터 | www.tchrd.org | 티베트 정치망명 인권기구 |
| 티베트여성협회 | www.rdwa.com Women tra.html | 정치권인 티베트 여성들의 모임 |
| 티베트를 위한 국제법률가 | www.savetibet.org |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심지에서 활동중인 법률가 |
| 자유 티베트 캠페인 | www.freetibet.org | 영국런던소 있는 티베트 독립단체 |
| 달라래과 기금 | www.mdahepa.org | 티베트 비폭력 독립투쟁 지원단체 |
| 티베트를 위한 국제법률가 위원회 | www.tibetcj.org | 티베트 환경·인권보호 |
| SFT | www.sfter.org SFT | 미국 티베트 독립을 위한 대학 학생 단체 |
| 티베트 기금 | www.tibetfund.org | 티베트 문화 보호 및 전파 |
| 티베트 협회 | www.magnetitibet.com magnetitibet | 티베트의 대한 정보 교류 문화 보호 |
| 티베트 하우스 | www.tibethouse.com |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 보호 기관 하우스 |
| 티베트 세계협회 | amsterdam park org ####/ Tibet home html | 티베트의 전통과의 보호 및 전파 |
| 티베트 독립 운동 | www.tibet!!!.com | 미국 티베트 독립을 위한 운동의 기본 |
| 나로파 불교교양대학 | www.naropa.edu | 티베트어·불교·정치학을 공부 |
| 자유티베트와 티베트 하우스 | www.embassies tc tcx_nb xmx htm | 티베트 관련 하우스 기관 |
| I Love TIBET! | www.tibet to | 일본 티베트 관련 정보 제공 |
| Tibet Online | www.tibet org | 세계 티베트 지원단체의 연합 협의기구 |

## 티베트 인권상황

## 中 침략후 120만명 고문 기아로 사망

## 사찰 6천여개 파괴…핵 실험장 전락

1950년 10월 7일 중국의 침략이후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20만명의 티베트인이 정치적 박해, 투옥, 고문, 기아 등으로 죽어갔다.

중국은 문화혁명(1966~1976)을 통해서 2000년 전통의 티베트 불교문화를 철저히 파괴했다. 6,259개에 달하던 사찰이 76년까지 불과 8개만 남게되었고 59만2,558명에 달하던 스님 중 11만여명이 고문을 당하고 사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25만여명은 직위를 박탈당했다.(95년 현재 티베트의 사원은 1600여개, 스님은 4만여명)

59년 라사에서의 민중봉기이후 달라이 라마와 정부관료 및 8만여명의 티베트인들이 인도 네팔 및 부탄으로 망명했다. 81년 이후 비폭력적인 의사표시의 이유로 감금당한 인사는 3500여명. 감옥과 노동수용소 등에서 70%의 수용자가 죽음을 당했다.

중국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족 이주정책을 편 결과 몇 배나 많은 한족들이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66년 중국정부는 티베트어의 사용을 금했으며, 모든 교사들도 중국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

중국은 또 티베트의 광물 산림 야생생물을 약탈해 중앙아시아의 생태·기상학적 균형을 위협하는 환경위기를 초래했다. 게다가 전략의 요충지이기도 한 티베트 지역은 중국의 핵무기 실험실과 핵폐기물 매립장소가 되었다.

영원한 진리의 향기

다시 보는 법구경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마치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하는 것과 같다.
차츰 미혹하여 그 나쁜 것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을 이룬다.
어진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마치 향기나는 물건을 가까이하는 것과 같다.
지혜로워지며 선을 익혀
마침내 맑고 꽃다움을 이룬다.
- 본문 중에서

허정스님 역음/본문 301면/값 8,000원

역은이 허 정 스님

범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사 주지, 총무원 포교연수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파주 심학산 약천사 주지의 소임을 맡고 있으며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히는
가장 대중적인 경전으로 부처님의 주옥같은 말씀이 그대로 담긴
《법구경(法句經)》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원하고 있다.

전화 (02)712-1938, 팩스 (02)706-9576
E-mail : geumsan@kornet.net
금산출판사

2000년 3·4월호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불교와 문화'가 격월간으로 발간됩니다

'불교와 문화'가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를 지향하며 디지털 시대, 열린 지면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 3·4월호부터 격월간 발행을 시작합니다.

종범 스님의 지상설법

2000년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의 육바라밀(六波羅蜜) - ❶ 보시(布施)
인터넷 정보혁명의 시대를 사는 불자들에게 대승불교 보살의 수행방법인 육바라밀을 통해 올바른 신행방향 및 불교의 역할을 제시한다

집중서평 김용옥 선생의 선불교 이해는 정확하다
- 최근 발간된 반상섭 선생의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에 대한 반박 글

컬러화보 ①. 이호신 화백의 생태그림기행 - 그림 속에서 찾는 山水와 기람의 숨결 - 자연이 숨쉬는 상생의 터전, 선암사
- 相生의 시대, 相生의 문화를 꿈꾸는 중견 한국화가 이호신 화백이 전국 사찰을 직접 답사하며 그린 사찰 경관과 자연생태 그림 시리즈

컬러화보 ②. 사진으로 보는 기람의 어제와 오늘
- 삼보사찰,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전각들의 변천사(일제시대와 현재의 모습)를 사진을 통해 비교한다

故 최응호 법사를 추모하며

최초 발굴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 탐방
- 그동안 일본 속의 백제불교에 비해 연구가 미약했던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에 대해 현지 답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 소개한다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 고려 공민왕이 쓴 영주 부석사 '부량수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인터넷으로 만나는 세계의 불교, 불교문화
- 최근 세계 불교계의 동향 및 팔리어 불전 전산화 사이트 소개

현대인을 위한 알기쉬운 불교신행
부처님의 가르침, 어떻게 믿고 실천할 것인가 - 관음신앙편(관음신앙의 특징, 관음기도법, 관음성지 소개)

인물포커스 근·현대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인론/송광편)
불교방송 초대사장 장상문 거사
전 불교신문 사장 이한상 거사

우리시대의 匠人 - 새 천년을 열어가는 앞서가는 불자
불교인터넷네레비전 대표 임동선 씨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 kbpf@chollian.net